

# 순천시, 2021년 국고 현안사업 보고회

### 내년도 현안사업 168건 4796억 추진상황 점검 코로나로 부처 방문 어려워...국고 확보 총력전

순천시는 지난 7일 허석 시장 주재로 '2021년 국고지원 현안사업 추진상황 네번째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 점검대상 사업은 총 168건 4796억 원으로 분야별로는 일반 현안사업 79건 3353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58건 688억 원, 공모사업 및 생활SOC 사업 31건 755억 원이다.

이번 보고회는 오는 30일까지 중앙부처 제출을 앞두고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나, 코로나 19로 부처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절박감을 전 직원에 인식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함으로써 정부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마련됐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국비 73억 원) ▲ 순천시 원도심 복합문화공간 조성(생활SOC 복합화 사업, 국비 61억) ▲ 금속 소재·부품 특화지역 조성 사업(국비 1,766억 원) ▲ AI 기반 개인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국비 280억 원) ▲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국비 100억 원) ▲ 순천만 교량교재가설 및 관광도로 확장사업(국비 350억 원) ▲ 순천시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건립(국비 50억 원) ▲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국비 40억 원) 등이다.

보고회를 주관한 허석 시장은



“코로나 19로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전라남도·중앙부처와 더 자주 교감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여 우리시

현안사업 모두 정부예산에 최종 반영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담양군, 코로나19 피해 특별지원 총력

###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지원 대책 마련

담양군이 코로나19 긴급 민생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 및 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별지원을 추진한다.

군은 코로나19로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을 월 10만원, 3개월 기준으로 30만원 1회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2020년 3월 22일 이전 관내 사업장을 등록 및 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체이며 도박,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신청기간은 5월 29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학습지 강사, 스포츠강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특수형태 고용 근로자 및 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자격은 중위소득 100%이하로서 올해 4월 6일 이전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에게도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대상은 2020년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서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2월 23일)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종사자,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는 8월 10일까지 담양군 풀뿌리경제과에 신청해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담양군 풀뿌리경제과장은 “당면한 위기상황에 따른 각종 경제피해 대책을 총력 추진해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고흥군, 가업을 잇는 청년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UP'

### 가업 승계 청년 1차 대상자 선정...1인당 3,000만원 지원

고흥군은 (조)부모의 대를 이어 가업을 이끄는 청년 육성을 위해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 1차 대상자로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업 승계 청년 지원 사업은 (조)부모의 안정된 가업 기반을 토대로 가업을 잇는 청년들에게 농·축산·어·수산업 분야별 가업승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대상자 공개 모집에는 총 13명이 신청하였으며, 1차(서류)·2차(현장실사) 심사에 이어 최종 심의를 통해 소상공 분야 2명, 어업 분야 3명이 1차 사업대상자로 최종 확정됐다.

고흥군은 올해 총 17명을 가업승계 청년으로 선정하여 사업비 각 3,0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층에게는 가업승계를 통한 안정된

일지리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가업승계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가업기반 여건을 개선하고 초기 투자비용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흥군은 가업 승계 청년 지원 사업 2차 공모를 5월경에 실시하여 사업 대상자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고흥군은 '청년 창업물(녹동청춘마루) 조성', '고흥 청년 내일 아트센터(My Job & Future · Art Center) 조성',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 '청년 내일로·마을로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고흥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 강인규 나주시장, 저온 피해 배 과수농가 방문

### 저온 피해 예방위한 농가 적기 대응 강조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7일 봉황·금천면 소재 배 과수 저온 피해 현장을 방문,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 시장은 이날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나주 배원예농협 관계자들과 함께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농가의 적기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국내 최대의 배 주산지인 나주

지역은 과수 개화기 전·후 꽃샘추위로 인한 저온현상으로 서리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특히 따뜻한 날씨로 평년보다 개화시기가 앞당겨진 가운데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 간 기온이 영하4℃까지 떨어지는 이상 저온으로 과수 면적이 넓은 봉황, 금천지역 등 일부 농가에서 서리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경우 배꽃 암술머리와

배수가 겹게 변하고 심하게는 개화 전 과사하거나 기형과로 자라 조기에 낙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수정이 된다하더라도 생육 부진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될지라도 예방과 후속 관리가 해법이다.

배연구소 관계자는 “배꽃 중심화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즉화를 선택해 인공수분을 실시할 때 수관 상부의 꽃들은 피해가 비교적 적으므로 수분 작업에 정성이 필

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올해 서리피해는 내년 개화에도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적과, 병해충 관리 등 사후 관리에 반드시 철저를 기해야한다”며 “낙과 후 요소를 염면 살포해 잎의 활력과 수세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열매숙기는 착과가 확실시 된 다음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정부와 전라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가겠다”며 “생육 초기 배 착과율 상승과 정형과 생산을 위해서는 농가의 신속한 대응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 보성군, 우리동네 가꾸는 보성 600 사업

보성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가 부활하고 있다.

웅치면은 올해 17개 마을이 보성600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관 및 소득사업으로 7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보성600 사업에 참여한 웅치면 주민은 “함께 일하며 옛 선조

들의 협동심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600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웅치면 봉산리 주민들은 최근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 공터에 금목서와 꽃잔디 등을 식재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마을 공한지가 아름다운 정원으로 탈바꿈 되었다.

보성=김덕순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 평 일 남

# 범 상 다

# 한 속 른

# 여 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레킹야센터/월출산 기찬랜드